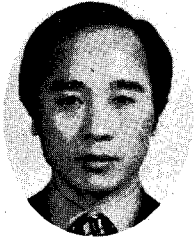


## 아트란타에서 파리까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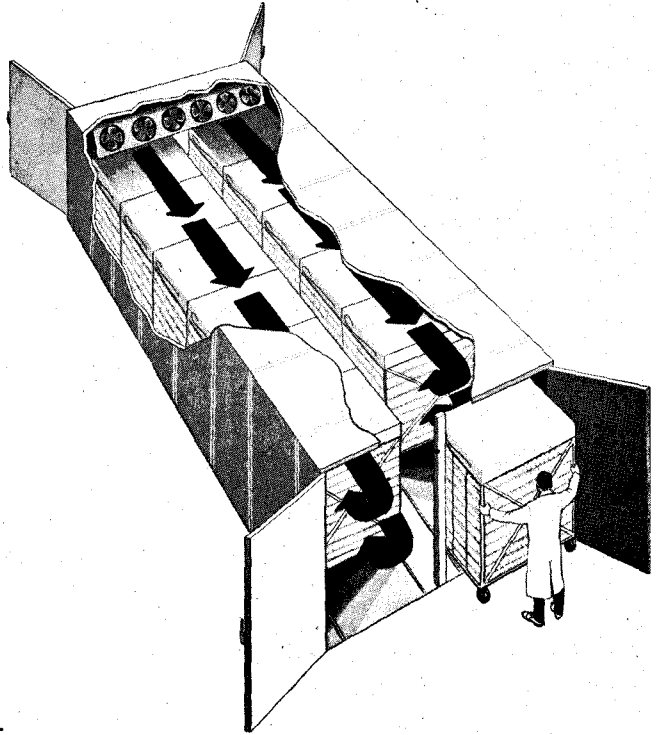
박 만 후  
(과학축산 대표)  
(과학축산시스템)

### 「아이오와의 무법자, 증돈 브로카들」

케민杜의 길은 플레바향을 뒤로하고 디스 모인즈시 재향군인 회관에서 개최되는 아이오와 양돈 박람회 (Iowa Pig Congress)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시경이었다.

ILIS 杜의 영업부장인 중국계 미국인 TAN氏의 안내로 들어선 박람회장은 각지에서 모여든 양돈업자와 출품한 육종농장, 증돈장, 사료회사, 제약회사, 기구회사들의 전시물과 직원들로 가득했다. 양계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양돈 역시 출품이 가장 많은 것은 기구였고 다음이 증돈이었다. 임신 진단기, 등지방 측정기 등 각종 육종 보조기구와 자동급이기, 급수기, 케이지등의 사양기구들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증돈은 세계적인 패지 육종회사인 P.I.C와 Decalb등이 하이브리드돈을 P.R 하기에 바빴고 이와 군소 증돈장에서 자기농장의 증돈을 선전하고 있었다.

그간 국내에 증돈을 들여온바 있는 S사나 L사등의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싶었으나 모두들 모른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들은 모두 브로카로써 외국에서 수입의뢰를 받으면 미국 각 지역에 산재한 일반 증돈장에 연락을 하여 보고 주문받은 규격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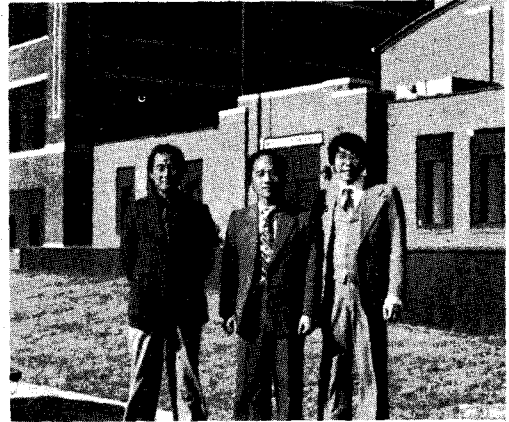


터널형부화기 (제임스웨이)

한 증돈이 있으면 이곳 저곳에서 모아 수출을 하는 사람들로써 자체 육종농장은 커녕 직원도 제대로 없이 업을 영위한다고 그곳

사람들이 전해 주었다. 더구나 마리당 500 \$ 정도의 가격을 받으면 150 \$ 내지 200 \$ 짜리 종돈을 구입, 수출한 관계로 이들이 공급한 종돈을 수입한 필리핀등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미국 종돈의 인기가 급락해서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가금 육종에 비해 세대간의 간격이 긴 돼지 육종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발전이 늦은 것도 사실이지만 유럽에 비해서도 5~6년씩이나 육종이나 사육시설이 뒤떨어진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즉 미국의 양돈지대는 콘벨트와 일치하며 대부분의 양돈농장가는 자체 옥수수 밭을 가지고 또 사료공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농가의 사료가격이란 우리나라의 사료가격과는 현저한 차가 있기 때문에 사료 효율이나 종돈 마리당 産仔數 등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된다. 이에 비해 사료를 수입해 쓰며 제한된 땅에 많은 頭數를 사육해야 하는 유럽은 상황이 다르다. 또 돼지 육종의 세계 첨단을 걷고 있는 영국은 일찍부터 대규모 양돈업이 발달했던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돼지 육종이나 종돈의 質은 아직도 미국이 유럽을 멀리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유럽의 종돈들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지금도 수입되고 있다. 왜 굳이 캐나다를 거치느냐 하면 캐나다는 종축수입이 개방된데 비해 미국은 다분이 폐쇄적이므로 유럽의 종돈이나 종계가 캐나다에 일단 밭을 들여놓은 후 같은 북미(北美)간의 域內 반입이 용이한 점을 이용, 다시 미국으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양돈에 관한 한 그 명성이 자자한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축산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즉 이 대학의 시험농장에 확보해 둔 랜드레이스 종모들이 너무 멋이 있어 어디서 확보한 것이냐고 질문한 바 캐나다에서 최근 수입한 스웨덴산 랜드레이스라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우수한 종돈은 캐나다 쪽에서 주로 확보한다고 했다. 많은 새



△ ILIS社를 방문한 서정환씨, 필자, 중국계 미국인 TAN 영업부장(좌로부터)

로운 기구와 최근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仔豚의 케이지 사양과 이에 따른 프라스틱 코팅바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회장을 떠난 때는 오후 6시 경이었고 호텔에 돌아와 보니 동행했던 서정환氏는 피로때문에 먼저 와 있었다.

다음날 ILIS (International Livestock Improvement Service Corp.)를 방문,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돼지의 임신진단기와 등지방 측정기, 로인측정기에 대해 TAN氏와 사장 Ekhart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우리 두사람은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방문했다. 이 대학에는 현재 한국 유학생 40여명이 수학 중에 있으나 우리가 만나러 간 것은 이들이 아니고 그들의 시험농장에 있는 닭과 돼지였으니 직업의식이란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는 Kern's농장의 Kern's氏초대로 에임스市 외곽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들었다. 붐비는 손님들중에 동양인 얼굴을 하고 주문을 독촉하는 여급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한국서 왔느냐고 반가워하면서 물어왔다. 아이오와 대학원에 재학중이라며 남편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밟고 있단다. 대학원생 여급이 날라다 주는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 다음날은 아이오와의 남부에 있는 Kern's氏 농장의 초대를 받고 종돈장을 돌아보았다. 가족의 일손에 의존하면서도 3,000여두의 종돈을 사육하는 이 농장은 특히 랜드레이스 위주였으며 부족한 일손 때문에 자질 좋은 종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스런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 종돈장이 이와 같이 평범한 종돈장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종돈장에서 나온 가장 우수한 종돈을 팔라 수입하지 못한채 부로커들이 적당히 가격에 맞춰 팔라다 주는 종돈을 미국에서 수입한 종돈(made in U.S.A.)라고만 믿고 있는 우리나라 종돈업자들이 답답할 뿐이다. 2시간을 달려 디모인즈 공항까지 오는데 거친 농장수가 10개 되었고 사료공장수도 10여개가 되었으니 이들농장의 규모를 짐작할수 있으리라. 디모인즈市的 한인 식품점 尹氏아주머니가 주시던 따뜻한 차 한잔과 김치의 시큼한 맛, 은은한 만두국 맛을 뒤로한 채 우리는 미국 경단의 본거지요 중북부의 요충인 미국 제2의 도시 시카고로 향했다.

#### 「세계 최고의 시어스탑」

한 시간여 날아 어두움이 깔린 거대도시 시카고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의 외기 온도는 화씨로 영하 70°. 무난히 호텔에 도착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토요일인 다음날과 일요일까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 주말 관광이나 즐기기로 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높은 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알아온 우리들이지만 토요일에 들렀던 시어즈(Sears) 백화점 빌딩(시어즈 타워라고 부름)은 그 높이도 세계 제일이려니와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속도도 가장 빠르며 바닥에서 꼭대기까지를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는 달랐다. 꼭대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

는 시카고 시가의 모습은 마치 바둑판 같았고 북쪽에 자리한 미시간호는 호수가 아니라 마치 바다같았다. 산업박물관과 미시간호를 연해 자리한 마천루들 사이를 관광버스로 구경하면서 어쩐지 적막감을 여러번 느낌은 심한 추위 때문일까? 영화화씨 70° 면 섭씨 30° 정도 된다던가? 미시간호에서 불어오는 다습한 북풍이 실외에서는 20분을 서 있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나 70~80여층의 높은 빌딩 옆에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고독하다는 느낌은 웬일일까? 저대형 건물을 지은것도 분명히 인간일테데.

10여년전 이곳으로 이주해온 동창생 이근무氏등을 만나 친구들 소식을 들었으나 여유 없는 일정이라 예 차리지 못한점 용서를 구하며 헤어졌다. 그가 경영하고 있는 식당과 기타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아틀란타에서 헤어졌던 정상태, 김영환氏가 우리보다 하루먼저 시카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어쩔줄 모르는 서정환氏를 보기가 민망스럽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시의 전화통을 놓을줄 몰라 하시더니 다음날 아침에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니 통화시간이 30분이란다. 이분들과는 일정이 달라 뉴욕에서 우리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다이아몬드 인터내셔널사에 들러 하루를 보낸후 클리블랜드에 있는 다이아몬드 샬록(Diamond Sharmrock) 회사를 방문했다. 이회사는 각종 인체 약품은 물론 각종사료 첨가제와 항생제 및 살충제 등을 생산하는 약품재벌로서 양돈용「A.S.P」 양계용「Nop Stress」, 살충제「WP-50」등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제품들이다.

#### 「캐나다와 제임스웨이」

오하이오의 북쪽 호수가에 연한 크리브랜드를 뒤로 하고 다시 비행기에서 내린 곳은 캐나다의 토론토 국제공항. 미리 나와서 기다리던 제임스웨이(Jamesway) 부화기 회사의 멕시코계 신입사원 R氏 차를 타고 눈덮인

별관을 2시간여 달려 닿은 곳이 캠브리지시에 있는 제임스웨이 부화기 회사. 미국 마-몬(Marmon) 그룹의 50여개의 계열회사 중 하나인 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가옥과 공장이 연한 이곳 주위는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세계 도처에서 오는 주문에 대해 준비가 바빴다. 방문시도 주문에 맞는 부화장의 설계와 부화기 공급 계획을 짜느라 J. Petroff 氏는 여념이 없었는데 80년에 시장에 내놓은 Jameswy 105 부화기는 외형이 종전의 빅-제이와 동일한데도 입란용량은 17%가 늘어나 있어 건축면적 절약은 물론 부화기 가격도 입란개당으로 환산할 때 종전것에 비해 훨씬 저렴해지고 크게 개선된 것은 턴넬형으로 되어 있어 부화기 문만 열고 台車(trolley)만 밀어 넣으며 반대쪽으로 18일간 발육을 거친 종란을 실은 台車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 작업이 간편해졌고 온도, 습도, 환기 조절장치가 붙은 조정판(Control pannel)을 완전 전자화하여 고장율을 1/5로 줄였다는 점이다. 이 고장은 부화기를 수입해 쓰는 경우 극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국내 대리점이 아무리 부품을 준비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불행히도 준비하지 않은 부품에 고장이 나버릴때는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화도 사고에 대비하여 전화회로를 3개의 회로판으로 분리하여 고장이 나는 부분의 회로판만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하여 한꺼번에 전화회로판을 다 교환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했다. 벽판 역시 특수 단열 장치를 이용하여 열의 손실을 막았는데 이 벽판은 계열의 냉동자재

제조회사에서 생산공급하며 조절장치는 같은 계열 전자부품회사에서 공급 받는다고 한다. 보다 좋은 제품 생산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중이었는데 우리와 달리 최소한 한 기계가 개발되면 1년간 공장에서 시험하고 다시 1년간 계약 부화장에 의뢰하여 시험을 거친 후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 새로운 기계를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적당히 제작, 판매해온 우리국내 부화기 제작소들도 이점 염두에 둘 일이다. 또 이들은 부화기로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걸 경우 적어도 연간 200대 이상을 제작하지 못하는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수 없으며 보다 좋은 부화기 제작에 많은 개발비를 투자할 수 없다고 한다. 분업화 된 부화기 제작 공정을 안내 받으며 이 회사의 면모를 다시한번 본 것은 부화기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부품을 저장한 창고 시스템이었다. 수천개나 되는 부품을 분류해서 적재해 놓은 창고에는 컴퓨터에 의해 재고가 정리 파악되어 있음은 물론 이들 부품을 집어 내 올때도 자동 크레인에 의해 부품들이 이송되어 나오고 집어낸 숫자만큼 다시 컴퓨터에 기록 시키곤 했다. 철판을 뚫는 드릴도 완전 자동드릴을 사용, 철판에 뚫을 구멍의 크기와 수, 위치등을 편지 카드에 넣어두면 자동드릴기계는 1mm의 오차도 없어 정확히 반복해서 뚫어 나갔다.

기계제작에 이런 정확성이 따르지 않고는 정확하고 정밀한 부화기 제작이 불가능함을 새삼 느끼게 했고 이러한 정밀성과 양산성이 성능과 가격면에서 동시에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계인은 단합된 힘으로 굳게 뭉쳐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을 지혜롭게 타개하자